

2024 기획연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도출에 관한 연구

노법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1. 연구 내용 개괄
2. 연구 방법
3. 분석 결과
4. 결론: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도출



연구 내용 개괄

- 주요 연구 문제

- 연구문제 1: 약 20년 간 기부 관련 언론 보도의 주제에서의 추이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기부 관련 부정적 언론 보도에서 드러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언론 보도의 한 반응으로서 댓글에서 드러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부 관련 언론 보도의 주요 권고점은 무엇인가?

- 분석 개요

- 기사문 분석 1: 20년간 기부 관련 기사문의 전반적인 주제 흐름과 긍정/부정 양상의 관찰
- 기사문 분석 2: 키워드 분석을 통해 부정적 기사문의 주요 내용을 관찰
- 댓글 분석: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유튜브 댓글에서 드러나는 의미 구조 분석



분석 방법

분석 자료

- **기사문:** 본 연구는 우선 약 20년의 기간을 범위를 두고 “기부”를 검색어로 수집된 기사문 본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중복과 일부 필터링 과정을 통해 최종 79,202건의 기사문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전처리 과정으로 형태소 분해를 진행하였음.
- **댓글:** 두 번째 분석 자료는 최근 5년간 유튜브에 공개된 언론 보도와 그 파생 콘텐츠 가운데 “모금 단체 비리”, “모금 단체 투명성”을 검색어로 검색된 영상에 달린 댓글 전수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검색결과 약 900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추출함. 이 가운데 댓글이 달린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댓글 초기 추출 결과 약 6만 5천 건의 댓글 자료를 수집. 중복을 제거하고 고유한 댓글 13,695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수집된 댓글에 대한 형태소 분해 과정을 거쳤음. 명백한 오타로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 과정을 거쳤음.



분석 방법

분석 방법(기사문)

- **Wor2Vec + CMD** : 기사문에 대한 첫 번째 분석은 기사문의 주제를 측정하는 과정임. 본 분석에서는 word2vec 자료를 활용하여 concept movement distance(CMD)방식을 채택하여 기사문의 주제를 파악하였음.
 - 기사문의 주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 가지 주제어로서 "자선단체", "정치권", "기업",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사문의 주제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침.
 - 기사문의 특성을 파악하는 또 하나의 차원으로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루었음. 긍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한 단어는 "공익", "헌신", "도움", "행복"이었으며, 부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리", "불신", "불법", "횡령"이었음.
- **TF-IDF** : 기사문 가운데 긍정성이 가장 큰 10,000건의 기사와 부정성이 가장 큰 10,000의 기사를 비교하여 각 텍스트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이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식을 활용함.



분석 방법

분석 방법(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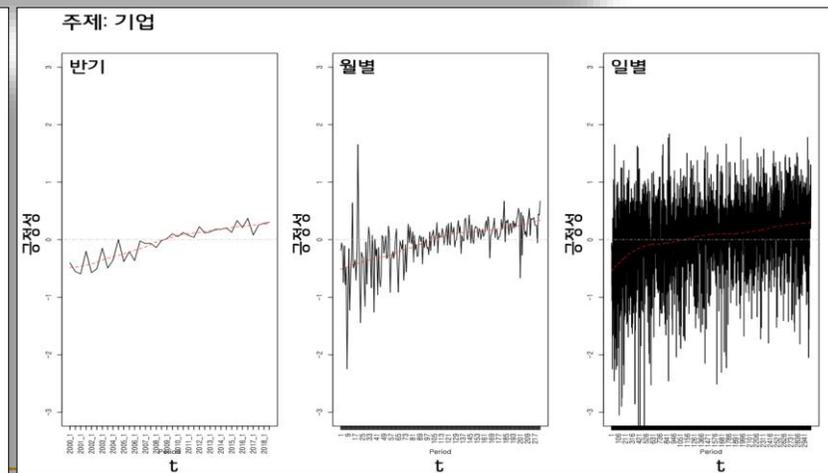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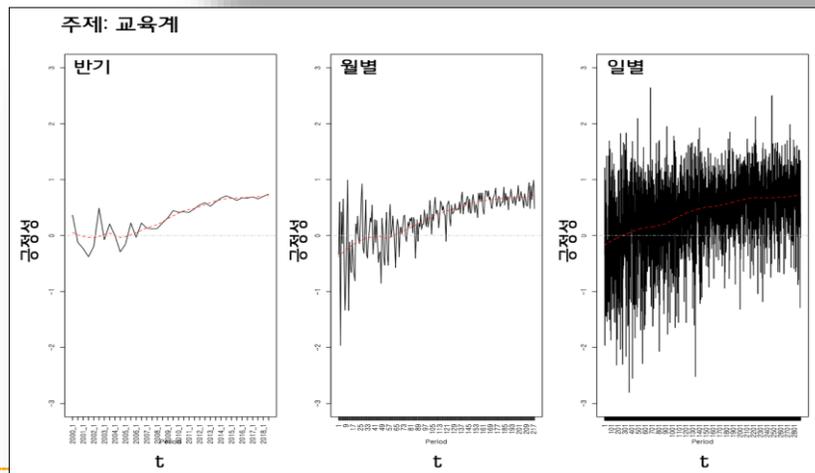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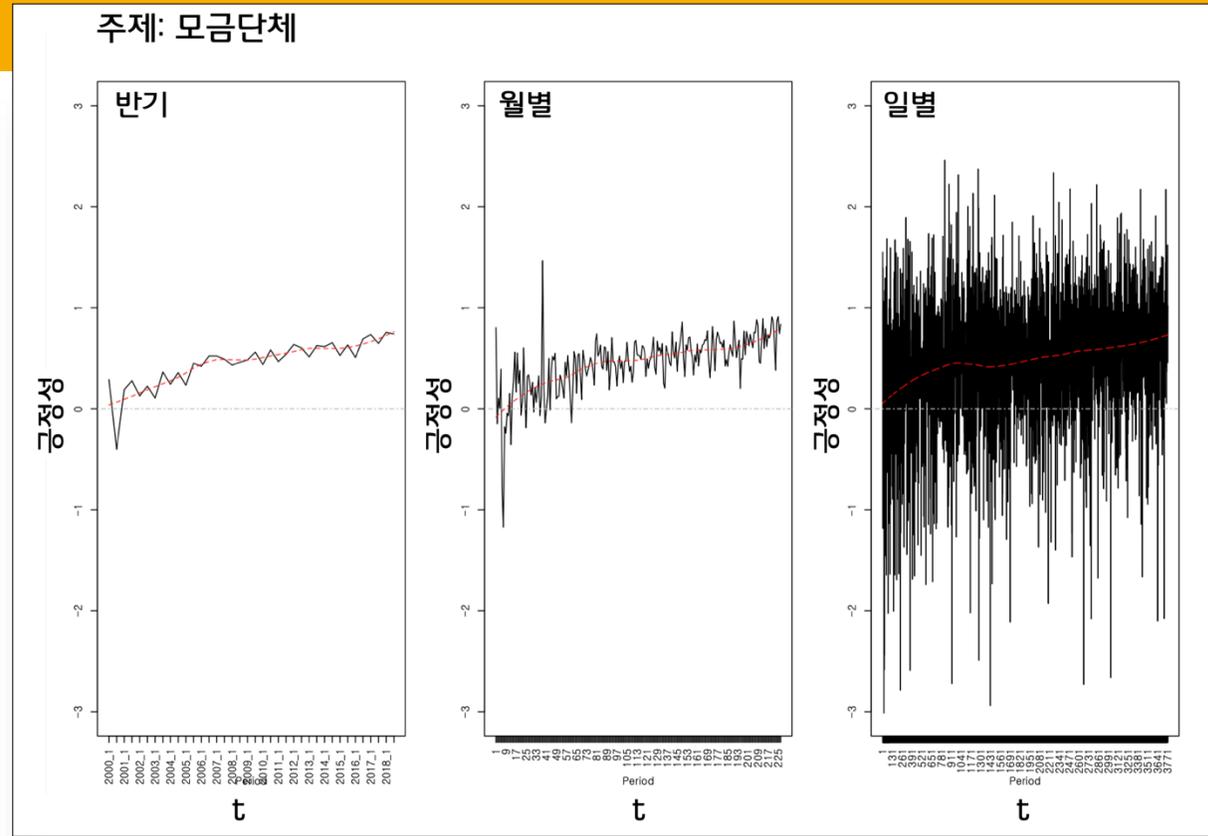
- **Semantic Network Analysis + Graph Mining:** 단문인 댓글에 담긴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단어의 공기성(co-occurring)에 기반한 단어 의미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구성하고 그래프 마이닝(graph mining) 기법을 통한 하위 네트워크 추출(sub-network) 과정을 통해서 기부 이슈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드러나는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 전체 의미네트워크를 도출하기에 앞서 단어 간 연관성에 대한 기준값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그래프 구조의 변동을 관찰하고 최적의 기준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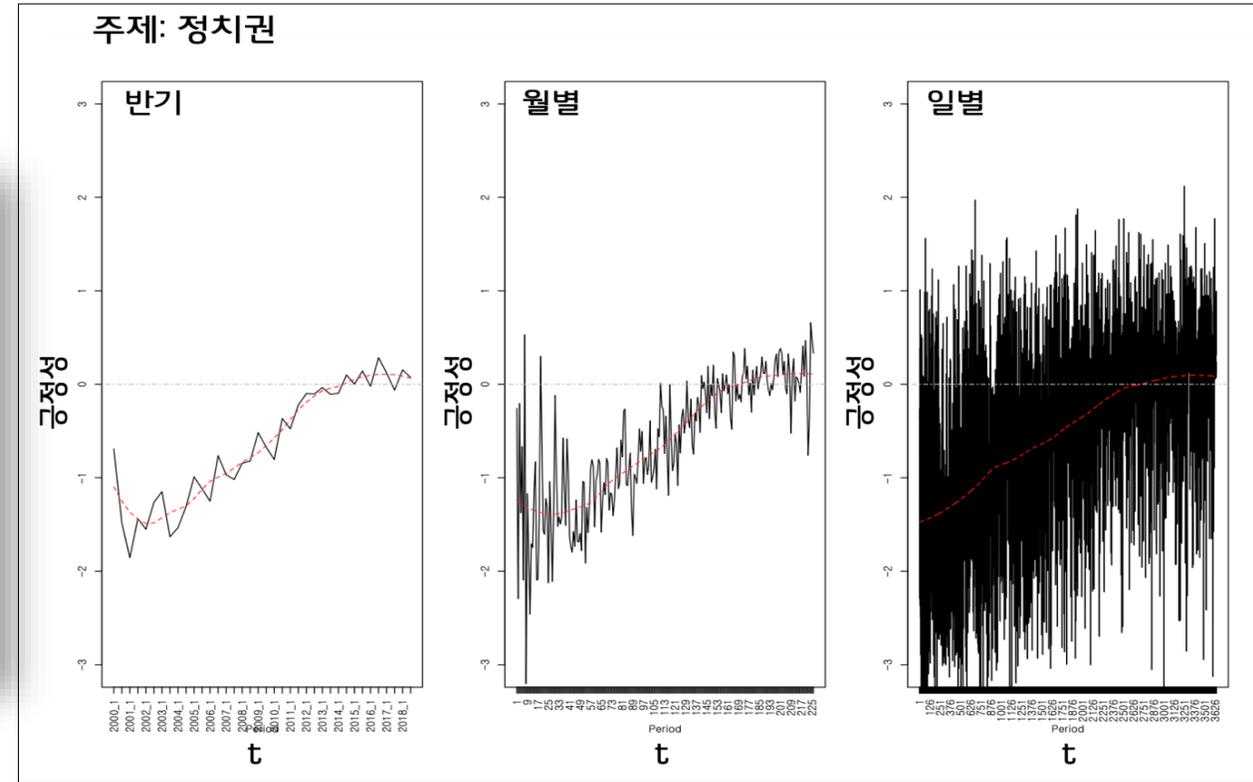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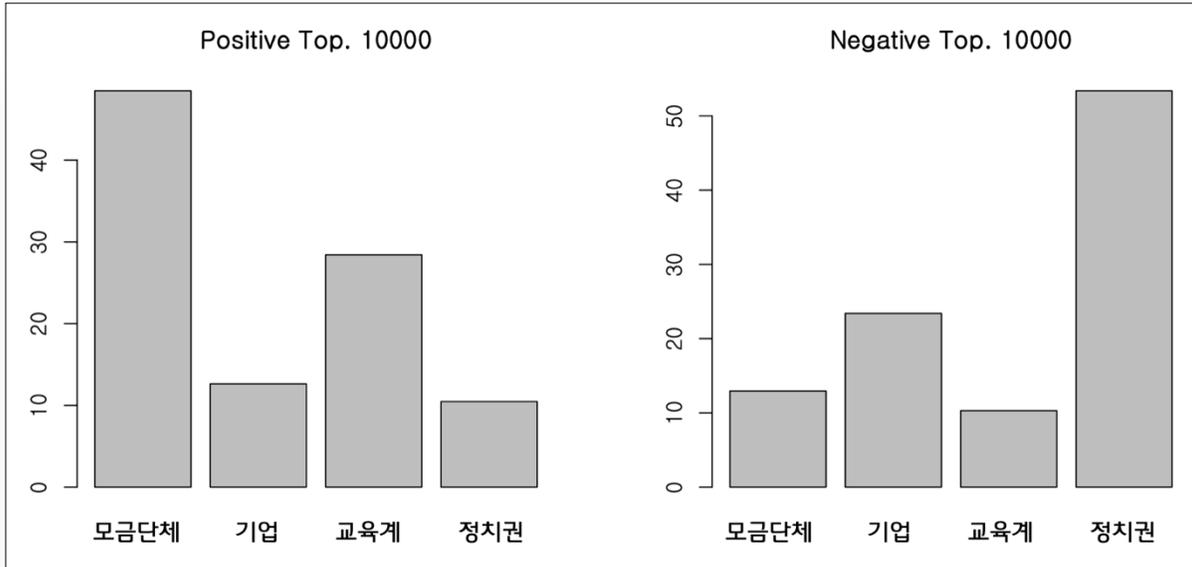
기사문(주제의 전반적 흐름)

- 모금단체(자선단체)에 대한 보도에서 긍정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음. 그러나 월별->일별로 시점을 쪼갤 경우 간헐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기사가 출현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탐색적인 수준에서 일정한 주기성 또한 관찰됨.
- 교육계(교육기관)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긍정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남.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도에서 긍정성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남. 단, 특정 시점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남.



분석 결과

기사문(주제의 전반적 흐름)



- 기부와 관련해 정치권 관련 내용은 부정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완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임. 막대 그래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긍정적 기사문 상위 10,000개의 약 50%는 모금단체와 관련이 있었으며, 부정적 기사 상위 10,000건의 약 50%는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음.



분석 결과

키워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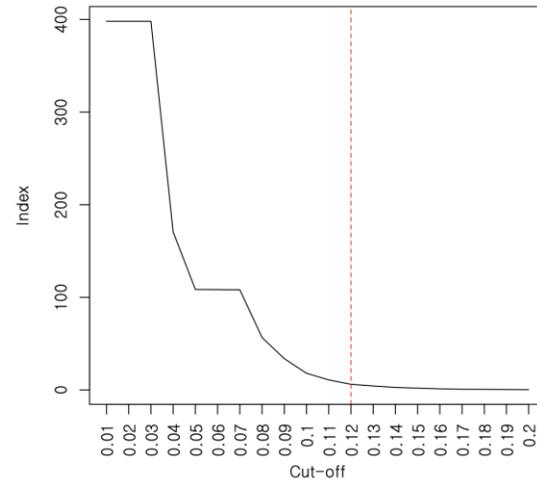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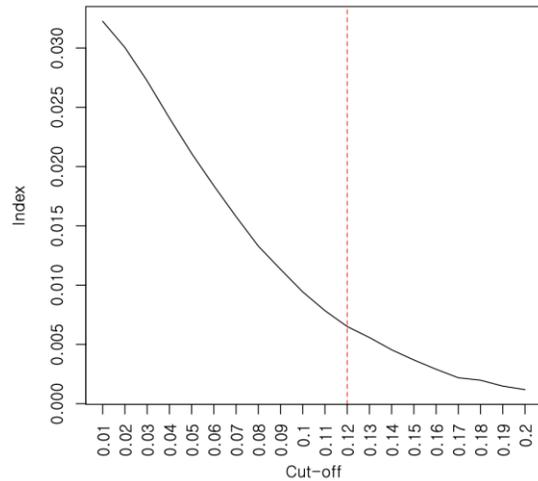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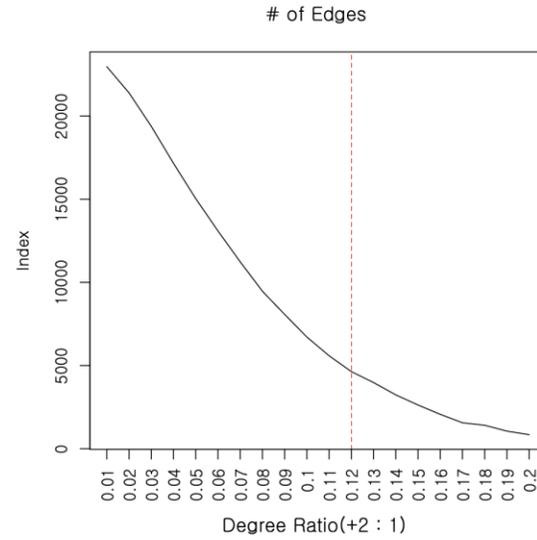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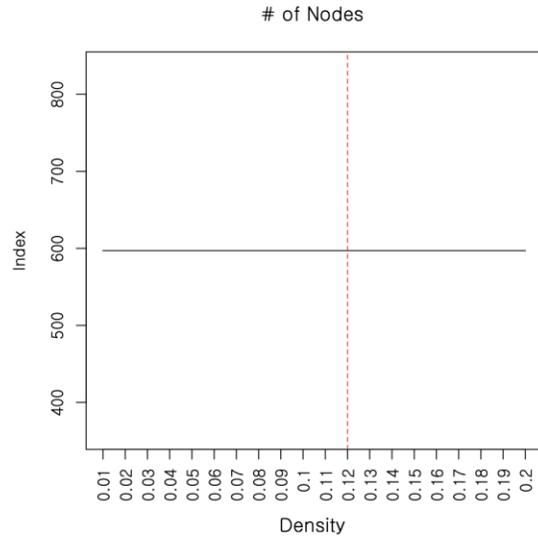
- 부정적 기사 상위 10,000건과 긍정적 기사 상위 10,000건을 비교하여 TF-IDF 방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임.
- 부정적 기사의 경우 종교관련(목사, 기독교), 지자체의 기부금 관련 비리(수재민, 수해, 수재의 연금), 해외 모금 단체 논란(게이츠, 결핵 등), 정치권 관련 논란(노조, 대북, 송금 등)이 주요 키워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긍정적 기사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관련해서 모금 단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경우 키워드로 포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실제 기사문을 확인하면 대부분의 경우 모금 단체의 이름 정도가 간단히 언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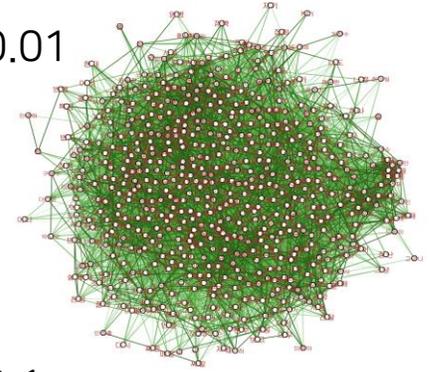
순위	부정적				긍정적			
	<2010		2010+		<2010		2010+	
	단어	tf_idf	단어	tf_idf	단어	tf_idf	단어	tf_idf
1	목사	0.00059	세월호	0.00094	마라톤	0.00057	초록우산	0.00097
2	수재민	0.00059	고액	0.00055	패션쇼	0.00045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0.00058
3	게이츠	0.00054	지진	0.00054	칼텍스	0.00044	롯데카드	0.00051
4	결핵	0.00050	피해자	0.00054	아모레퍼시픽	0.00036	환우	0.00050
5	수해	0.00044	경찰	0.00047	참가자	0.00035	션	0.00050
6	식량	0.00044	연평도	0.00046	굿모닝신한증권	0.00034	소셜기부	0.00049
7	태풍	0.00042	봉투	0.00046	전시회	0.00033	응원	0.00049
8	방안	0.00041	통일	0.00044	파리바게뜨	0.00032	티몬	0.00047
9	수재의연금	0.00039	희생자	0.00042	기회	0.00031	반려동물	0.00044
10	노조	0.00037	이중	0.00041	태평동	0.00031	기적	0.00041
11	대북	0.00037	혐의	0.00040	사회봉사활동	0.00029	꿈	0.00040
12	에이즈	0.00037	국세청	0.00038	주먹밥	0.00029	미래에셋생명	0.00038
13	거액	0.00037	대지	0.00038	옥시	0.00028	아너소사이어티	0.00037
14	반납	0.00036	**재단	0.00036	유방암	0.00027	유니클로	0.00037
15	송금	0.00036	종교단체	0.00035	기증품	0.00027	재능	0.00035
16	혐의	0.00035	내역	0.00033	불우이웃돕기	0.00027	현대해상	0.00034
17	경찰	0.00034	신고	0.00033	풀무원	0.00027	광동제약	0.00034
18	기독교	0.00033	사료	0.00032	현대홀딩스	0.00027	세이브더칠드런	0.00033
19	피해지역	0.00033	****업	0.00032	청정원	0.00026	키트	0.00033
20	예산	0.00032	위안부	0.00030	이마트	0.00026	넥슨	0.00030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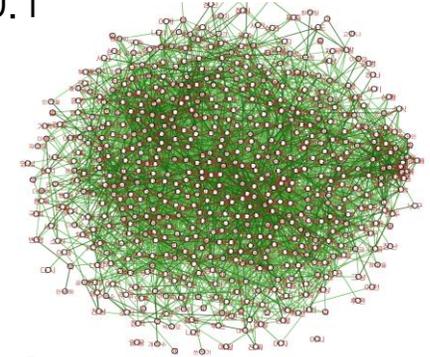
그래프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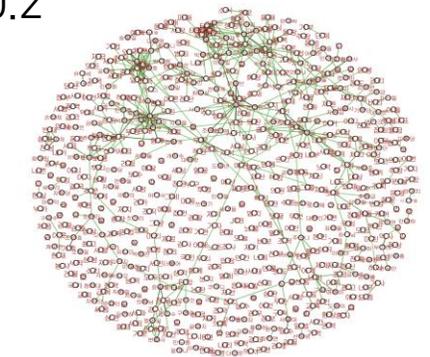
Cutoff = 0.01



Cutoff = 0.1



Cutoff = 0.2



분석 결과

댓글 분석 결과(그래프 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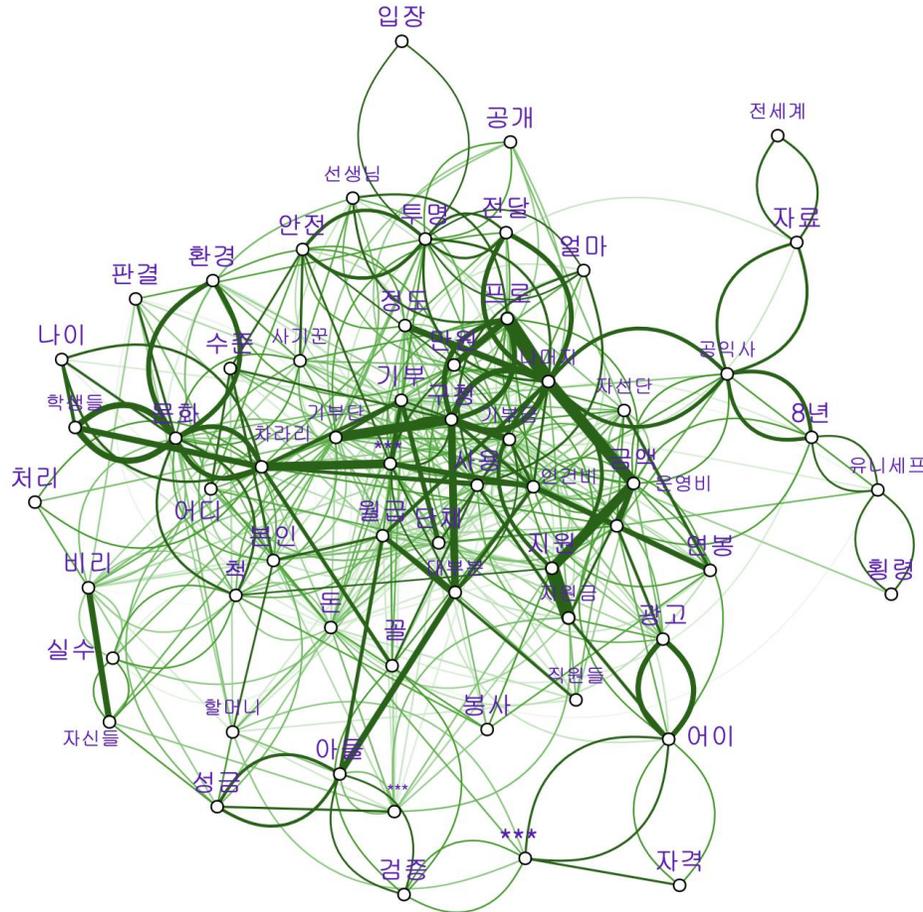
“...미국방송에서도 자선단체 모금액 90 퍼센트는 개인주머니로 흘러간다...”

“90% 이상 공익 사업? 그안에 임직원 월급 빼면 10% 도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세부내역을 공개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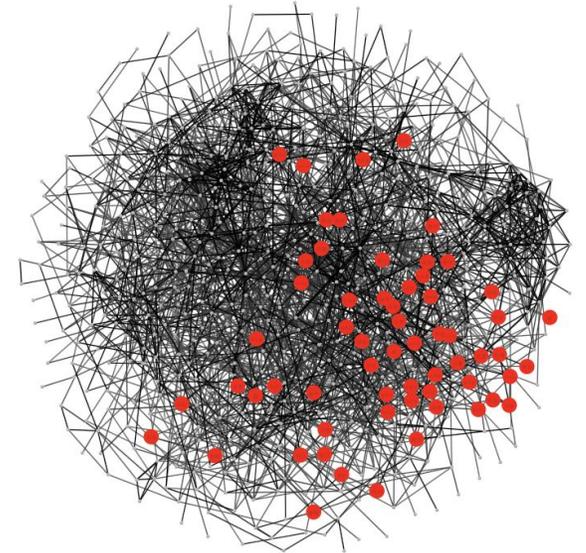
“너네 초록우산재단애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아니..”

“...세이브더칠드런 연봉 이억 좀 못됩니다. 이런데 기증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100만원중 20만원 정도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Sub_community_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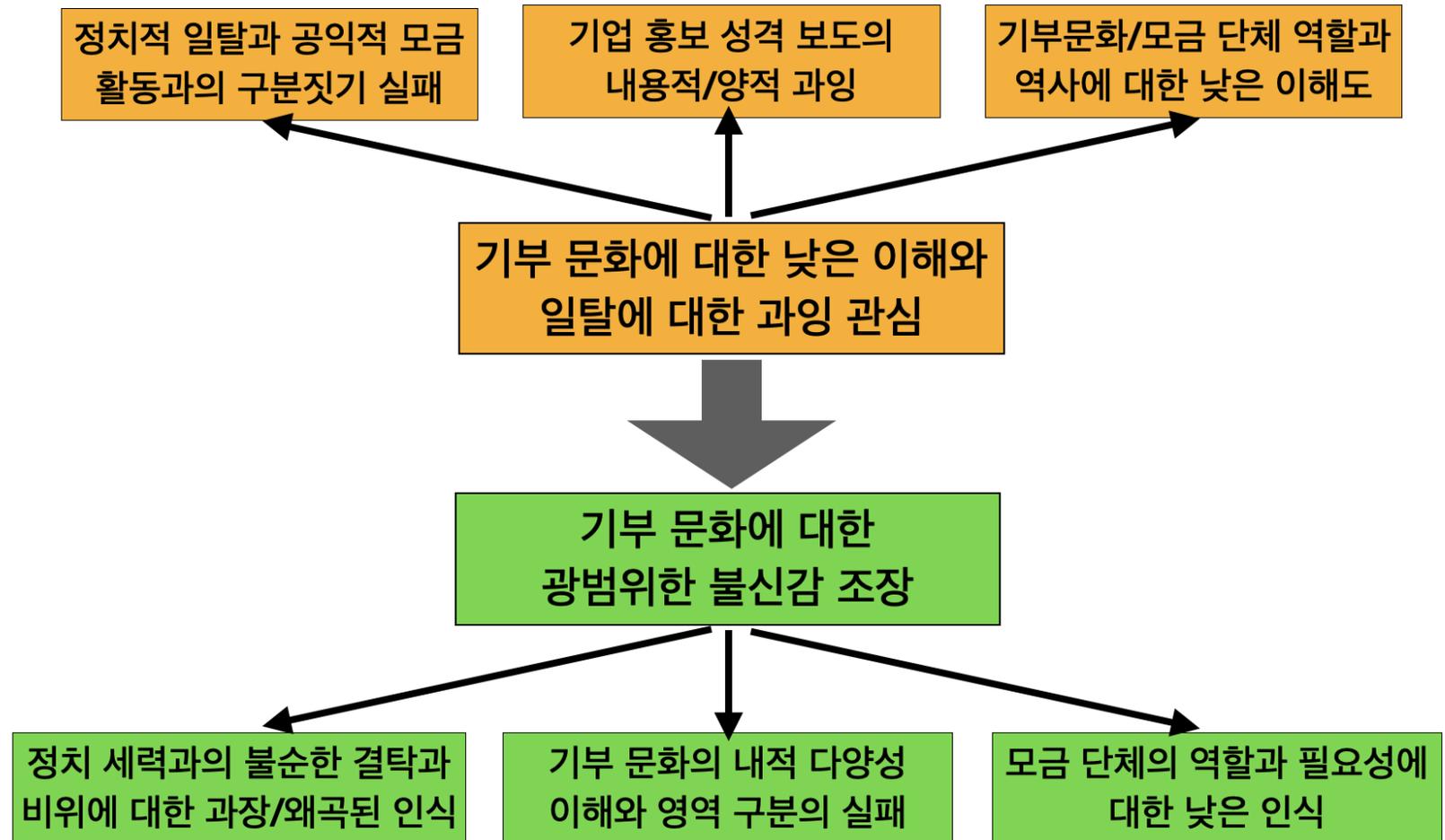


하위커뮤니티 - 2
(모금액 운영에서의 의혹)



분석 결과

분석 결과의 종합



결론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도출

- 기부 관련 보도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

- 언론의 보도 방식에 따라서 기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
-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사회 문제 해결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 활동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부정확한 선정적 보도 태도에 의한 기부 문화의 위축과 사회적 손실의 발생을 이해.
- 과거 모금 단체의 “비리”를 다룬 것으로 언급된 기사의 상당수가 웹 상에서 제목은 검색이 되지만 실제 기사문은 포털 등에서 삭제되어 있는 등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을 다수 확인



결론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도출

- 기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탈에 대한 과잉된 집중을 경계하기

- 기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탈적으로 보이는 측면만을 과잉하게 부각하는 보도 태도는 지양해야 함.
- 일탈에 과잉된 초점을 두는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사실 관계의 왜곡이나 부정확한 용어 사용 등의 문제로 부정확한 정보 전달과 현상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인식을 남길 가능성이 큼.
- 지난 20년간 많지 않은 몇 개의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댓글 등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일탈에 관심을 둔 과잉된 보도 태도가 미치는 장기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결론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도출

- **모금 행위가 이뤄지는 사회 영역에 대한 일정한 구분에 입각한 보도 태도**

- 20년 간의 기부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문들은 대부분 정치 자금 논란, 지자체 비리, 종교 단체, 문화체육 분야 등과 관련. 실제 일반적인 모금 단체의 사례는 소수였음. 그럼에도 일반 모금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관찰되는 것은 보도 과정에서 모금 행위가 이뤄지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경계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임.
- 경계 설정 없는 언론의 보도 방식에는 기부 행위 그 자체가 비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줌. 따라서, 비위 발생이 일어나는 영역과 사회 일반의 공익을 위한 모금 활동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

 이런 선긋기는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상황에 보다 적합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기부와 관련된 일반적 용어 사용 지양 등을 통해 실천할 필요가 있음.

결론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도출

- **모금 단체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

-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모금 단체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하는 노력이 필요.
- 일반적으로는 기부자(개인 혹은 기업)의 기부 노력에 대한 의의를 조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노력을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파트너로서 모금 단체에 대한 소개와 역할에 대한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기부자의 노력이 해당 모금 단체의 어떠한 고유한 장점에 의해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다룬다면 기부자의 노력이 지니는 가치를 더욱 부각할 수 있음과 더불어 선한 영향력의 파트너로서 모금 단체의 존재를 주변화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이런 보도 방향은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홍보를 넘어 기부 문화 촉진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